



성경적 경영시리즈 1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업하기

글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97년 말 한국을 강타한 경제위기 당시 두 권의 책이 큰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트러스트', 즉 '신뢰' 라는 책으로서, 저자는 세계 여러 나라를 고신뢰 국가와 저신뢰 국가로 구분하여 설명했고, 한국은 저신뢰 국가로 규정했다. 한국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 당시 경제위기는 투명성과 신뢰가 부족한 기업경영과 경제시스템이 가져온 것이라는 데 대해 절실하게 공감했었다.



영적자본과 창조적 역량

그 후 지난 10 여 년간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는 ‘투명성과 신뢰’였다. 과연 한국은 고신뢰 국가로 변화했는가? 긍정적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국의 투명성 지수는 전 세계에서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규모가 15위인데 비해 부패지수가 매우 높아 고신뢰 국가와는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 한국이 고신뢰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한국 사회의 영적 자본(spiritual capital)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기업선교(Business Mission)의 저자인 케네스 엘드레드는 어느 사회든지 신뢰자본이 형성되려면 먼저 영적 자본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진국에 아무리 원조를 해도 빈곤을 탈피하기 어려운 것은 신뢰자본의 부족 때문이고, 신뢰자본은 영적 자본의 토대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기업선교는 경제적 자본 제공만이 아닌 영적 자본의 축적을 지원하여 사회의 신뢰기반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하며, 이는 영적 자본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빈부격차 같은 사회적 요인 때문이지만, 그 근저에는 영적 자본의 약화 내지 변질에 있다고 본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업을 하려면 기업 내에 영적 자본에 기초한 신뢰 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부즈 해밀턴이 제출한 한국에 관한 보고서였다. 이 책은 한국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끼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여러 가지 해결책은 많이 제시되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문제점, 즉 NATO(No Action, Talk Only) 증세가 심하다고 했다. 한국이 이러한 샌드위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창조적 지식강국으로서 혁신적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창조적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늘어나야만 한국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복지, 통일 비용의 감당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역량을 기업경영을 통해 최대한 발현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높다.

기업의 성경적 경영 핵심원리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 영적 자본의 형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는데 크리스천 기업가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매우 크다. 그들은 기업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경영의 탁월성과 윤리성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성실한 대리인(agent), 즉 청지기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핵심원리는 공정(justice)이다. 공정성이란 의사결정시 치우침이나 편파성을 배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 원리는 신뢰(trust)로서 일관성, 정직성, 투명성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이며,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배제를 의미한다. 셋째는 책임성(accountability)으로서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듯이 맡기신 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갖는 것이다. 넷째는 배려(benevolence)로서 포용성, 호혜성, 사회공헌 등을 포함한다. 포도원의 일꾼 비유에서 보듯이 은혜와 관용의 원리에 해당한다. 다섯째는 창조(creativity)로서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인류역사의 발전은 창조의 역사이며 끊임없이 새로

운 가치의 창출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하셨다. 산업혁명 이후 기업의 발전이 있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절대빈곤의 역사였다.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게 한 것이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경영이 발전한 덕분이다. 한국도 지난 50여 년간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이 발전하면서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은 우리에게 일터와 삶의 터를 제공하는 생명업이자 하나님의 창조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이다. 기업은 또한 인재개발업이기도 하다. 기업을 통하여 직원들의 역량이 개발되고 성취욕구가 실현된다. 기업은 안보업이기도 하다. 기업을 통하여 축적된 경제력은 국방력의 뒷받침이 되고, 안정된 중산층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 선진국이란 좋은 기업이 많은 나라이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나라다. 좋은 기업이란 경

쟁력이 있으면서 사회와의 공생력, 지속가능성을 가진 기업이다.

한국은 20세기 후반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높은 반기업정서를 가지고 있다. 일종의 성공의 함정, 성공의 복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간에 너무 성공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고 있다. 한국은 국가적 환난을 겪으면서 민족생존과 빈곤탈출에 대한 강한 열망(hungry spirit)을 갖게 되었다. ‘잘 살아보세’가 오랫동안 국가 비전으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왔다.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불안, 불신, 불만이 팽배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의 기업과 경제의 운용이 성경적 원리와 어긋나게 경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세속의 풍조와 사조를 따르다 보니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게 된다.

크리스천 경영자의 자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비전, 새로운 규범과 규율, 올바른 인재 육성, 창조경영, 리더십 개발 등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명령과 선교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이다. 기업인은 하나님의 대리인(agent)로서 청지기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성경적 경영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크리스천 경영자의 기본자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책임을 갖는다는 기본 원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의 소유와 주권과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에 근거해야 올바른 방향이 설정될 수 있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과 재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자원을 개발하고 다스리고 개발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자원을 사용할 때 낭비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기업 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만이 아닌 맡기신 분에 대한 책임의식에 근거해야 한다.

책임의식은 효율성과 함께 효과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사용을 절감하는 데 중점이 주어진다면 효과성은 올바른 목표를 설정했고 이에 얼마나 근접했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고객 니즈의 변화나 기술혁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효과성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와 함께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천 경영자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원리를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인간의 창조성은 신뢰의 조직문화가 기반이 될 때 잘 발휘될 수 있다. 신뢰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높여주고 높은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배려는 심층적 신뢰를 가져오는 요소이기도 하다. 기업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진정한 창조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많은 자원과 능력을 보유한 크리스천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업경영의 핵심 사명은 신뢰성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경영의 탁월성을 실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